

광주시, 10월 국제디자인총회 성공개최 '올인'

“U대회 저력 이어가겠다”... 시, 행정지원단 활동 돌입

문화관광·숙박보건 등 9개반 세부 추진상황 집중 점검

광주시에 오는 10월 열리는 2015국제디자인총회의 성공 개최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광주 U대회의 성공 개최 저력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10월 광주에서 열리는 2015국제디자인총회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지원단이 지난 25일 출범하고 공식활동에 들어갔다.

시는 국제디자인총회 지원을 위해 문인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문화관광, 숙박보건, 가로정렬, 교통대책 등 9개 반으로 지

원단을 꾸렸다. 지원단은 30개 과제를 선정, 앞으로 총회 종료시 까지 분야별 세부 추진상황을 점검, 총회 지원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광주시는 2013년 2월 국제디자인총회 광주유치를 확정된 이후 국제 주요 디자인단체 참가 협약 체결에 이어 공동주최측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조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또 기존연설·통합 및 분과세션 운영 등에 필요한 67명의 국내·외 디자인 저명인

사를 연사로 확정했으며 숙박시설 확보(28곳 1천486실)·참가등록 사이트 및 숙박시스템 오픈·온오프라인을 통한 국내외 홍보활동 등 행사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번 총회는 10월 17일부터 이틀간 전남대(G&R Hub)에서 신진·학생 디자인 워크숍 및 주요단체 콘퍼런스와 총회가 먼저 선보인다.

개회식은 10월 1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기조연설·토론·통합 분과세션·광주 도시 탐방 및 문화행사 등이 이어진다.

특히 체험 마케팅 모델 개발자 번 슈미트(폴로비아대학 교수), 디자인 저술 작가 빅터 마콜린(시카고 일리노이대학 교수), 애플사 책임디자이너 하르트무트 에슬링

거(frog design 설립자), 중국 중앙미술학교 전 원장 관 공카이, 미디어아트 이이남 작가 등 디자인계 최고인사들이 강사로 대거 참가한다.

광주시는 이번 국제디자인총회가 광주 하계U대회에 이어 다시 한번 광주를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광주만의 독특한 전통문화와 남도의 고유한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도 제공 계획이다.

한편 국제디자인총회는 70여개국 3000명의 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 콘퍼런스로, 오는 10월 17일부터 일주일간 '이음(Design Connects)'을 주제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행정에도 지속 가능 발전정책 도입 절실”

이정삼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박사 논문 ‘눈길’

“경제성장·환경보전·사회 형평성 조화 이뤄야”



“행정에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담은 박사학위 논문이 나왔다.

이정삼(사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은 최근 ‘지속가능발전 구성요소’에 대한 입찰자 분석 및 환경요소 강화방안 연구’란 주제를 통해 전남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번 연구에는 558명의 시민, 기업인, 공무원, 시민단체, 교수 및 전문가 등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인식과 입찰자 분석 기업이 활용됐다.

이 국장은 논문에서 “1972년 ‘UN 인간환경회의’에서 지구환경문제를 중심으로 시작된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30년만인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세계정상회의에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사회적 형평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발전’개념으로 완성됐다”고 전제한 뒤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영원한 정책기조로 남을 수밖에 없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정책에 시급히 도입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이번 논문을 통해 광주 시민들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인식수준이 매우 높고 정책 적용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는 반면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속가능 발전정책 추진 수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65%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지속가능 발전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UN과 세계의 국가 정상들이 30여년에 걸쳐 개발하고 완성한 개념이 녹색성장에 파묻혀 있는 국내 상황이 안타까웠다”며 “지속가능 발전정책이 광주시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정착되는데 이 자료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국장은 광주 출신으로 지난 1997년 지방고시를 통해 공직에 첫 입문한 뒤 기후변화, 환경정책과 등 주로 환경관련 업무에 매진해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공사, 기간제 근로자 ‘화합의 장’ 마련

광주도시철도공사가 공사 내 기간제 근로자와 화합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공사는 “29일 문화체육관광부(광주시 남구 포충로)에서 열리는 ‘광주예술난장’ 공연에 기간제 근로자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내달 1일부터 공사에서 함께 일하게 되는 기간제 근로자와의 소통 및 화합을 위해 마련됐으며, 도시철도 1호선 역장협의회에서 관람권 전액을 지원하고 기간제 채용 예정 근로자

275명중 희망자 180명에게 배부했다. 공사는 공연자와 관객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판막당 공연을 통해 소통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동안 지쳤던 심신을 달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사는 지난 24일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는 17개 역을 방문해 비정규직 직접고용 전환에 따른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중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소방본부, 지역내 의료시설 139곳 특별조사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27일 “지역내 의료시설 139곳에 대해 소방 특별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소방시설 작동 여부, 화재시 환자 안전 전대체 제도, 병원 관계자의 소방 안전 관리 내역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대상은 종합병원 22곳, 병원 69곳, 정신병원 4곳, 요양병원 44곳 등 등이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인명 대피 유도 요령을 교육하고 불량 사항이 발견되면 시장·보안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방침이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병원은 환자가 많아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다”면서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올해의 고용 우수기업 16개사 선정

성일이노텍·대흥정밀·에이스원 등 인증서 수여

2년간 경영자금 증액 등 행·재정 인센티브 제공

광주시가 고용창출실적과 고용 환경 등이 우수한 지역 내 16개 기업을 ‘2015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광주시는 지난 2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최근 1년간 고용창출 실적과 고용환경 등이 우수한 16개 기업을 ‘2015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사진〉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 증대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지원해 민간부분의 일자리창출을 장려하고, 지역사회 전반으로 일자리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시행 첫 해인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총 186개 기업이 선정됐다.

올해 선정된 기업은 ▲태양광 생산업체인 에스디엔㈜, ㈜탑솔라 ▲금형업체인 ㈜신한몰딩테크, ㈜대흥정밀, ㈜에스디엠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성일이노텍, ㈜씨엠텍 ▲에어컨 제작업체인 ㈜에이스원, 유테크노 ▲식품포장 제조업체인 ㈜은혜기업, ㈜덕성푸드 ▲골절치료용 인플란트 제조업체인 ㈜티디엠 ▲광통신부품 제조업체인 ㈜골드텔 ▲철삭용공구 제조업체인 새물정밀기술㈜ ▲특장차 생산업체인 ㈜화인특장 ▲공장자동화설치 제조업체인 ㈜세아씨엔티 등이다.

고용우수기업에는 인증 기간 2년 동안 ▲경영안정자금 한도 증액(3억원~5억원) 및 이차보전 우대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인하 ▲무역보험 보증료 할인 확대 ▲수출

진흥자금 우선 지원 ▲광주시 중소기업 청년인턴 우선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기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광주시 중소기업 선정 우대 ▲재직자 자녀 장학금 지원 등 총 16종의 행·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고용우수기업 선정 요건은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인면서 고용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소기업은 3명 이상)인 기업 중 고용 실적, 고용 유지율, 정규직 비율 및 청년층 채용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이다.

우범기 시 경제부시장은 인증서 수여식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시장의 최우선 가치로, 생계를 넘어 광주의 당당함을 지켜내는 힘의 원천”이라면서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규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맛의 고장

광주 알리기

향토음식육성위원회 출범

‘맛의 고장, 광주’를 알리기 위한 향토음식육성위원회가 출범했다.

광주시는 지난 26일 우범기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향토음식육성위원회를 구성, 첫 총회를 개최했다.

위원회 구성은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KTX 고속철 개통 등으로 광주를 찾는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향토음식을 발굴, 관광 상품화해 ‘맛의 고장’ 광주의 이미지를 되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주기 위해서다.

위원회에는 우 부시장을 단장으로, 신말식 전남대 교수, 손길선 남도음식문화콘텐츠진흥원 대표, 이은경 남도전통음식연구회 등 음식 전문가 10여 명이 참가했다.

광주의 향토음식 육성을 위한 ▲향토음식 발굴 및 브랜드화 ▲향토음식 경쟁기반 구축 ▲향토음식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 ▲향토음식 국내외 홍보 마케팅 등 4개 분야를 집중 논의하게 된다.

우범기 광주시 경제부시장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광주만의 여운과 감칠 맛 나는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올해를 광주 향토음식 육성 원년의 해로 삼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채희종기자 chae@

APT 담보대출

상가·주택 담보대출

감정가 대비 70%

※ 신용상태 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자산맞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 자동차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천 이상 2장)
-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 장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 (1천만원 이상)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 장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 (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초회 공제 5만원 이하 - 1장, 10만원 이하 - 2장, 10만원 이상 - 3장)
-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계좌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과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쟁입회 후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미지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